

## 축산업도 이제는 글로벌 시대다



김 대 식 팀장  
(주)하림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관세화 보호 장벽이 무너지면서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시장 경쟁력이 좁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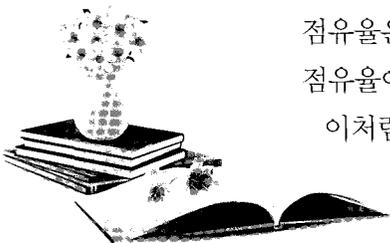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은 시장 개방과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구상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경영 전략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영국의 Financial Times지의 칼럼에서 “삼성은 과거 가난한 이의 소니제품 대응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휴렛팩커드(HP)를 제치고 전자기업 중 세계 1위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2010년 삼성은 일본 전자기업 상위 15개 기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명실 상부한 일류기업으로 도약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Forbes지는 “삼성의 갤럭시 S는 글로벌 히트상품 반열에 올랐다. 삼성 특유의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시장 전략의 승리다. 올해 애플의 신제품 ‘혁명’에 대응할 경쟁자는 오직 삼성뿐이다”라고 했다.

미국 경제일간지 The Wall Street Journal도 “삼성의 세계 TV 시장 점유율은 20%, 역사상 그 어떤 개별기업도 이룬 적이 없는 초유의 시장 점유율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 무대로 공격적이면서 진취적인 전략을 펼친 결과 가전제품에 있어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손꼽히고 있다. 국내 축산식품 분야도 글로벌경영을 통한 세계





우리 축산업도 이제는 국내를 벗어나 세계 시장에서 도전과 창의적 혁신을 통해 삼성, 현대와 같은 한국 식품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경영을 분석하고 기술과 투자 전략을 통해 선진 축산물 식품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국내 축산기업들 가운데 닭고기 산업의 대표 기업인 하림은 지난 8월 미국 닭고기 회사 순위 19위 업체를 인수해 글로벌 경영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이번 인수에 있어 역 수출 등으로 인한 국내 닭고기 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일 뿐이다.

오히려 선진 기술교류를 통해 국내 사육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전통 닭고기 식품인 삼계탕과 토종닭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 내 아시아계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매출 확대를 통한 세계 기업 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는 구조적인 먹거리 부족 지역으로 자원이 남아도는 남북 아

메리카 등 즉, 캐나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하림의 미국 시장 진출은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교두보 확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국가 성장과 함께 축산기업 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삼성과 LG, 현대 등 국내 굴직한 전자제품 및 자동차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시장 경쟁의 특징을 파악해 신기술과 신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맞춤형 경영 전략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 축산업도 이제는 국내를 벗어나 세계 시장에서 도전과 창의적 혁신을 통해 삼성, 현대와 같은 한국 식품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이다.